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itizen Archivist’ Training Program

이도순(Lee, Dosoon)*

1. 머리말
2. 기록활동가 정체성과 양성 교육 프로그램 현황
 - 1) 기록활동가 정체성
 - 2)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현황
3.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의 방향성
 - 1) 기록자치를 실현하는 기록활동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기획
 - 2) 아카이빙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
 - 3) 아카이빙 방법의 체화를 위한 이론과 실습 구성
 - 4) 조력자이자 협력자로서의 기록전문가
 - 5) 비대면 교육 방법 개발
4. 맺음말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과 박사수료(dosoon1230@hanmail.net)

■ 투고일: 2021년 06월 30일 ■ 최초심사일: 2021년 07월 09일 ■ 최종확정일: 2021년 07월 19일

■ 기록학연구 69, 95-128, 2021, <https://doi.org/10.20923/kjas.2021.69.095>

〈초록〉

기록학계에서 민간기록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면서 민간기록의 가치와 기록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민간기록을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개념적 논의가 진행되며 공동체의 관점에서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가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과 더 나아가 기록의 민주화와 기록주권에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각 지역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시작되고 기록활동을 하는 지역 구성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과 공동체 아카이브를 지원하는 관의 역할과 제도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학계에서는 지역 기록활동을 하는 주체와 그들의 실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각 지역에서 실행되는 교육이나 아카이빙 활동 현황들이 발표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기록 교육 프로그램들을 활발하게 진행하며 기록활동가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은 지속가능한 기록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그들의 정체성을 살피고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양성교육의 목표가 교육을 통해 학습된 지식을 실천하는 기록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보고, 먼저 '기록활동가'의 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기록활동가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주관 기관의 관련자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록활동가를 공동체의 기록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아카이빙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이들이 공동체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주된 주체이며 핵심적 존재라고 판단한다. 더 나아가 기록활동가의 활동을 '기록자치권'을 실행하여 '기록자치'를 실현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바라본다. 다음으로 기록활동가 양성을 위해 진행된 국내 교육 프로그램을 사례 분석하여 국내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동향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기록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이 나아가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단순히 일반 시민 대상 프로그램이 아닌 기록자치를 실현하는 기록활동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으로 보고 교육과정으로써 설계되어

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기록활동가, 공동체 아카이브,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 기록활동가 양성교육, 시민교육

〈Abstract〉

As interest in private records began to develop in the research of archivists, discussions began about the value of private records and how to collect and manage private records from the standpoint of archivists. After that, the conceptual discussion on community archive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ommunity, collecting and preserving their own records, and the democratization of records and the sovereignty of records are discussed. As a result of this trend, maeul making projects were started in each region, and citizen archivists appeared who do archives activities, and research on the role and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to support them and community archives. Recently, as research on regional record activities has begun,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and activities in each region is being announced, in addition archives education programs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nationwide to train citizen archivist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out their identity of their, in order to cultivate sustainable citizen archivist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the citizen archivists training program should pursue. First, we consider that the educational goal of citizen archivists training program is to train citizen archivists who practice the knowledge learned through education, and examine the identity of 'citizen archivist', the goal of training education. In this study, local archivists are regarded as local members who engage in archiving activities based on their locality, and they are judged to be the main actors and core beings in building

community archives. Also the activities of citizen archivists are viewed as active and subjective beings that realize 'Archival autonomy' by implementing 'Archival autonomy'. In addition, it analyzes the cases of researchable citizen archivist training programs in Korea that were conducted to foster local archivists and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Finally, the direction of citizen archivists training program for cultivating citizen archivists is presented. In this paper, I think that the citizen archivists training program should be designed as a curriculum to practice the education goal, not as public program.

Keywords : citizen archivist, community archives, maeul community archives, citizenship education, community archives training program

1. 머리말

최근 개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IT기술의 발전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개인 기록이 생산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개인은 펜과 종이를 사용한 문자기록 이외에도 스마트 폰, 디지털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음성기록, 사진기록, 동영상기록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생산하고 공유하며 활용한다.

더불어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재개발로 인한 '잊혀져감'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공감되고 있다. 재개발에 대한 지역민의 감정은 1970년대 개발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1970년대 '새마을 가꾸기 운동', '알뜰한 마을 만들기'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전국 마을에 시멘트 지붕, 지붕개량과 주택 개량을 넘어서 전통적 초가지붕과 꼬부랑길 등 옛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며 마을 길을 확장하고, 개천조차 직선으로 흐르도록 하는 등 취락구조 개선사

업으로 이어졌다. 당시의 마을은 국가의 관점에서 개혁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김성보 외, 2016, 95-96). 그러나 2000년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대한 상실이 동반되면서 내가 살던 공간과 사람에 대한 기억을 남기고자하는 움직임들이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동체 아카이브에 관심이 생겨나고, 지역 기록 활동을 하는 기록활동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기록학계에서 지역 아카이빙, 공동체 아카이브에 관련한 연구는 민간기록,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2008년 이영남의 마을아르페 제안 논문을 시작으로 마을 아카이브, 마을 아카이빙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영남(2008)은 복합문화공간 또는 커뮤니티 센터 형태의 아카이브인 ‘마을아르페’를 제안하며, 마을아르페는 문화적 치유의 커뮤니티로서 마을 운동의 중심점이자 인문적 삶의 중심점의 공간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록학계 내 민간기록과 공동체 아카이브, 아카이빙 활동에 대한 연구들의 경향은 2008년부터 2012년경까지는 전문가가 공동체의 기록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활용하는 내용이 중심이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설문원(2011)과 김화경(2012)의 연구가 있는데 이 시기에는 공동체 기록을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고, 주민 참여형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해 논의되었다.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전문가 관점에서의 수집·관리를 벗어나 공동체 구성원 관점에서 공동체 기록을 아카이빙 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것은 2012년 이후로 볼 수 있다. 2012년 이후부터는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는데 이 시기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영남의 연구와 윤은하의 연구가 있다. 이영남(2012)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공동체 아카이브의 의미를 설명하며 국가 아카이브와 다른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윤은하(2012)는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성립 배경에 대해서 소개하며 사회

적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동체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며 기존 기록관리 방법론이 공동체의 기록을 관리하는데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공동체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 기록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록공동체의 범주와 특징에 대해 밝히며 공동체 아카이브의 사회적 의미와 한국 사회에서의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처럼 2012년 이후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공동체 아카이브의 주체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전문가들에 의한 공동체 아카이빙에서 나아가 공동체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주민 주도형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주장들이 등장하였다. 이경래(2015)는 기존의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사업들의 사례를 분석하며 거버넌스 형태의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 주도형 마을 아카이브 거버넌스 구축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록학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후 학계 내에서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개념적 논의에만 그치고 있었다.

공동체 아카이브의 '실천'에 대한 실질적 내용을 다룬 연구들은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손동유와 이영남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공동체 아카이빙 활동 현장을 경험하며 공동체 아카이빙 활동의 방법과 의미,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손동유(2019)는 공동체 기록관리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관(官) 주도형, 민(民) 주도형, 기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사례를 바탕으로 현황과 한계를 정리하며, 공동체 아카이빙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분야에서 공동체 아카이빙이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원인으로 관의 지속적인 지원 부족과 그간의 민간분야의 아카이빙 활동의 결과가 출판으로 마무리되는 현상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원인을 현장과 학계의 논의가 따로 움직인 것에 있다고 보고 실천하며 만들어가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영남(2019)은 자살유족 기록

작업을 증례로 소개하며 공공기록과는 다른 일상기록의 생산과 일상적 아카이브의 의미를 살펴보고 기록공동체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손동유(2020)는 민간 아카이브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주체들인 중앙기록관리기관, 기초자치단체, 각급 문화기관, 주민활동가들이 적절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기록학계에서 공동체 아카이브, 지역 아카이빙 활동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제 현장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동체 아카이빙을 실행하는 핵심적인 주체인 기록활동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미미하다. 아직 국내에서 연구논문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서야 기록자치와 기록자치권에 대한 의견들이 발표되면서 기록활동을 하는 주체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조영삼(2020)은 국가기록원에서 주관하는 지방기록원 설치 확산을 위한 기록관리 학술 세미나의 기조발표에서 ‘기록자치’는 공공기관에서 시민기록을 수집해서 전시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이 주체적으로 행하는 기록활동이라고 말하며 기존의 기록자치에 대한 인식을 비판하며 로컬 아카이브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원종관(2021)은 상생협력워크숍 청주시 기록관 공동포럼에서 지역 아카이브의 핵심 요소는 공간과 같은 물적 지원에 앞서 기록활동을 하는 지역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학계 내에서 공동체 아카이브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주체인 기록활동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기록활동가들이 자생적으로 발생하거나 관이 주도하는 교육을 통해 기록활동가를 양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나 세부적인 교육과 지원에 관한 연구들은 미미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역 기록활동가의 등장하고 활동하는 현상들에 대해 전문가로서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적으로 전문가들이 지역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정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활동이 실천되는 기록활동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의 기초 단계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라 판단한다. 이에 외부자인 기록전문가가 내부자인 공동체 구성원을 기록활동가로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록활동가’와 관련자의 인터뷰를 통해 기록활동가의 정체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기록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이 완료된 27개의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아카이빙 활동을 위한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설계 시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영남은 ‘아마추어 아키비스트’라고 표현하며 이들을 전문 아키비스트가 아닌 공동체 내부의 구성원으로, 공동체 기록의 정리하고 기술한 사람들이라 설명하였고(이영남, 2012, 4), 설문원은 ‘시민 아키비스트’라고 표현하며 자기 공동체를 기록화하기 위해, 자신들의 역사가 담긴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라 정의하였다(설문원, 2012, 18). 인터뷰 실행과 현황조사를 위해 ‘기록활동가’에 대한 기초적인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의 정의와 설명을 기반으로 기초정의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활동가’를 기록학 비전문공자이지만 기록의 가치를 이해하여 기록을 수집·생산·채록하여 보존·활용하는 활동을 하며 ‘시민 아키비스트’, ‘시민기록가’, ‘기록가’ 등으로 불리는 사람이라 정의한다. 이 중 ‘지역 기록활동가’는 자신들이 살고 있거나 살지 않지만 생활권인 지역, 혹은 자신과 연관성이 있거나 관심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록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지역 아카이빙 활동의 주축이자 지역을 아카이빙하는 핵심 주체로 보고, 그들의 실천을 지역성에 기반한 아카이빙 행위나 과정이라 정의한다.

2. 기록활동가 정체성과 양성 교육 프로그램현황

1) 기록활동가 정체성

공동체의 기록이 마을 주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수집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마을 만들기 운동과 풀뿌리 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공동체 아카이브가 구축되기 시작한 무렵부터이다(이경래, 2015, 54). 이후 지역의 기록을 수집하고 생산하는 이들을 ‘기록가’, ‘시민기록자’, ‘마을기록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칭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은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의 핵심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양성 교육의 목표인 ‘기록활동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역마다 비슷하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기록활동가의 정체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록활동가와 기록활동 관련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 선정기준은 ‘기록활동가’의 기초정의에 부합하는 단체나 사람,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천이 ‘기록활동’으로서 기록학계에 공감을 얻고 있는 단체나 사람, 단발성 사업 참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동유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 단체나 사람이며, 다양한 시각의 답변을 듣기 위해 활동 지역이나 단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기록활동을 지원하는 주체를 포함하여 인터뷰 대상을 6명으로 선정하였다.

〈표 1〉 인터뷰에 참여한 기록활동가 및 지역 기록활동 관련자 목록 및 일정

기록활동 단체명	활동지역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일정	비고
강원아카이브협동조합	강원도	김시동	2019년 8월 14일	기록활동가
겉뚝 (시흥아카데미 마을기록학교)	시흥시	전혜선	2019년 8월 1일	시흥시청 책임관

골목잡지 사이다	수원시	최서영	2019년 7월 15일	기록활동가
매거진 총무로	총무로	이란	2019년 8월 27일	기록활동가
정말기록당	정릉 (서울시 성북구)	최연희	2019년 8월 5일	기록활동가
해방촌 마을기록단	해방촌 (서울시 용산구)	심수림	2020년 10월 16일	기록활동가

이 인터뷰는 실제 현장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기록활동’의 현황과 ‘기록활동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하였다. 인터뷰는 각 1회 120~180분 동안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개별 인터뷰로 수집되었다. 인터뷰의 공통질문은 활동 동기, 활동 현황, 기록에 대한 인식, 활동 시 애로사항, 향후 계획 등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준비한 질문을 통해 관련된 정보를 얻기도 하였지만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답변하며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기록활동과 지원에 관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기록활동가들의 활동 동기를 살펴보면 ‘정말기록당’¹⁾, ‘강원아카이브협동조합’²⁾, ‘총무로 매거진’³⁾과 같이 ‘기록’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지역의 기록을 남기고자하는 목적으로 시작한 경우도 있지만, 수원 ‘골목잡지 사이다’⁴⁾와 같이 ‘기록’의 가치이나 ‘기록활동’에 대한 인식이

- 1) 정말기록당의 경우 2018년 3월부터 정릉을 기록하기 위하여 정릉의 마을기록 기준을 주민들이 만들고, 여러 단체와 개인이 참여하는 주민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19. 8. 5 최연희 상임활동가 인터뷰 내용)
- 2) 강원아카이브협동조합의 경우 2009년 사진으로 도시의 변화하는 모습을 기록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민들과 몇 개의 단체와 동아리들이 연합하여 기록활동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를 발판으로 ‘원주24도시기록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2019. 8. 14 김시동 대표 인터뷰 내용)
- 3) 매거진 총무로의 경우 2013년 결성된 총무로 일대 인쇄업 종사자들의 독서모임에서 2015년 e-book의 등장으로 인쇄업이 사양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총무로 인쇄거리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고자 <매거진 총무로>를 창간하였다. (2019. 8. 27 이란 소장 인터뷰 내용)
- 4) ‘골목잡지 사이다’의 경우 편집디자인 직종에 근무하였던 최서영이 수원지역으로 이주를 한 후 지역 공동체 내에서 살아가고자 지역 잡지 발행을 기획하고, 2012년 지역문화잡지 발행을 시작하였다(2019. 7. 15. 최서영 대표 인터뷰 내용).

없이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삶을 위하여 시작된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해방촌 마을기록단’과 같이 기록활동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 활동 목적이 지역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시작된 경우와 ‘걸뚝⁵⁾과 같이 지역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기록활동가를 양성하고 모임을 만들어 기록활동을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

기록활동가들의 활동 방법과 기록화 도구 또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골목잡지 사이다’와 ‘매거진 충무로’의 경우 지역 잡지를 출판하였고, ‘강원아카이브협동조합’의 경우 사진촬영을 통해 기록을 생산하여 출판하거나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한 기록을 활용하고 있었다. ‘해방촌 마을기록단’의 경우 ‘놀이’로써 기록활동을 하고자 하는 ‘마을기록 키트’ 개발 등 마을기록을 아카이빙 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활동 방법에 대한 선택 사유는 활동을 이끌어어나가는 주체들이 가장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기록화 도구를 선택하고 사용하였다고 공통적으로 대답하였다.⁶⁾

- 5) ‘걸뚝’의 경우 시흥시에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100년을 맞이한 2014~2015년에 ‘시흥 100년을 기념한 사업이 진행되었고 지역의 근현대사 자료를 수집·발굴·보존하여 체계화하며 ‘바라지와 산업단지의 도시, 시흥’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하였다. 컨테이너 박물관 ‘기억창고’와 시흥아카데미 마을기록학교는 2015년에 당시의 시흥시청 시민소통담당관실 도시브랜드팀에서 시행한 ‘백 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향후 ‘시흥 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한 선제 단계로 지역의 이야기를 축적하고 역사자료 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갖고 ‘기억창고’를 기획·설립하여 박물관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흥아카데미 마을기록학교에서는 시흥시 마을의 역사와 오래 거주한 사람들의 구술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마을기록가 양성을 목표로 하여 시행하였다. (2019. 8. 1. 시흥시청 전혜선 책임관 인터뷰 내용)
- 6) ‘골목잡지 사이다’는 최서영 대표가 편집디자인 직종에 종사하며 출판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종이 잡지형태를 가장 선호하였다(2019. 7. 15. 최서영 대표 인터뷰 내용). ‘매거진 충무로’의 경우 인쇄업 종사자들의 독서모임에서부터 시작하였고, 자신들의 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기록화 방법이 인쇄와 출판이었다(2019. 8. 27. 이란 소장 인터뷰 내용). ‘강원아카이브협동조합’의 경우 김시동 대표가 95~96년부터 사진작업을 하며 강원도 사진을 촬영하기 시작하였고 사진촬영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었다(2019. 8. 14 김시동 대표 인터뷰 내용). ‘해방촌 마을기록단’의 경우 기록단으로 참여한 구성원들이 매우 다양하여 이야기(지역에 대한 기억 등)를 가지고

이처럼 실제 현장에서의 기록활동가의 활동은 지역 아카이빙 활동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활동의 시작 동기와 방법에는 차이점이 있었다. 이들의 기록 활동은 해당 지역과 참여하는 주체의 특성과 편의성에 맞게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활동가들은 자생적으로 발생되기도 하지만 교육을 통해 양성되기도 한다. 관이 주도한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기록활동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시흥시의 ‘결뚝’을 들 수 있다. 시흥시의 ‘결뚝’은 2015년 시에서 주관하는 ‘시흥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기록활동가 모임을 결성하도록 지원하였는데, 이때 교육을 수료한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2016년에 ‘결뚝’이라는 이름의 지역 기록활동가 모임이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손동유, 2019, 50). 이들은 관 주도의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기록활동가로서 2017년까지 관의 지원과 관심으로 활동모임, 전시, 수장고 기능을 할 수 있는 ‘기억창고’라는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뷰티풀 시흥』이라는 시 소식지에 기록활동 내용을 기사화하여 기고하기도 하며, 기록활동의 결과를 출판물로 발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8년 이후부터 시의 사업 중요도 변경으로 인해 관의 관심과 지원이 중단되었다.⁸⁾ 하지만 이들은 자체적인 운영을 통해 자발적으로 기록 활동을 현재까지도 지속하고 있는 것을 활동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⁹⁾

참여한 구성원과 기록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20. 10. 16 심수림 대표 인터뷰 내용).

- 7) 강원카이브협동조합, 정말기록당, 두껍말기록단 등이 자발적으로 발생한 기록활동가에 해당된다.
- 8) 기록활동가들의 아카이빙 활동을 통해 수집된 기록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2018년 시장 교체와 시 사업의 중요도가 변경되어 기존의 마을 기록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오이도박물관’, ‘시흥 일곱물길 여행’사업에 집중하게 되었다. 기존의 사업명인 ‘바라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시흥 일곱물길 여행’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나 사업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마을 기록가들은 변경된 사업에 따라 바라지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9. 8. 전혜선 책임관 인터뷰 내용)

인터뷰에 응답한 기록활동가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이 수집하고 생산한 지역의 기록을 보존·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활동을 실행하며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관의 주도로 이루어진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주최 측에서도 수집된 기록을 보존할 곳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거점공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록활동가들이 느끼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활동 초기부터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록활동이 지속되면서 서로의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집·채록·생산한 기록의 양이 증가하였고, 보존과 관리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기록활동가들이 지역 구성원의 기억과 기록을 수집과 생산하는 과정에서 기록을 보존하고 공유하는 공간인 ‘공동체 아카이브’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내적 동인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록활동가는 자생적 혹은 관이 주도하는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하여 공공기관에서의 공적 기록들만으로 미처 남기지 못하는 공동체의 기록과 기억을 공동체 구성원의 관점에서 자발적으로 남기며 공동체의 역사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방식대로 남겨진 기억과 기록들의 보존하는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자각하고 있었다.

인터뷰와 현황조사를 위해 설정하였던 ‘기록활동가’의 기초적인 정의를 기반으로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재정의하면, ‘기록활동가’란 다양한 동기에 의해 자신들이 가장 익숙하고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기록을

9) ‘겉뚱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름다운 시흥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http://blog.daum.net/ppq35>)” 블로그에 게시되는 활동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정기적인 모임과 기록활동, 자체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마을 기록활동 등 기록 활동 모임 유지하고 있다.

수집·채록·생산하여 보존과 활용하는 활동하며 기록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이중에 ‘지역 기록활동가’는 자신이 살고 있거나 생활권인 지역, 혹은 살았던 지역이거나 관심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록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활동가들의 등장은 기존에 기록전문가들에 의해 수집·정리된 기록을 이용하는 수동적인 존재를 넘어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어떤 기록을 생산하고 수집하며,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기록활동가들은 기록학과 같은 관련 학문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기록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를 기록화 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아카이빙 활동을 하며 공동체 기록의 관심으로 인해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기록활동가들의 관련 전공 진학 현상은 자신들의 기록을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내적 동기가 발생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기록활동가들의 아카이빙 활동과 활동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각된 기록의 가치에 대한 인식들은 기존에 기록전문가나 공동체 외부자의 관점에서 수집되고 정리된 기록을 활용하는 정도에서 나아가 스스로 자신들의 기록을 아카이빙 하는 ‘기록자치’가 실현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기록자치권’이란 개인과 지역이 자신의 목소리로 사회적 기억에 참여하고 정체성, 기억과 설명책임의 목적을 위해 기록관리와 아카이빙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Joanne Evans 외, 2015, 337-338). ‘기록자치권’을 행사하여 실현하는 ‘기록자치’란 공동체 구성원이 ‘기록활동’에 주체적으로 나서는 것이며, 그 ‘기록활동’이 ‘자치활동’의 하나로 작동하지만 하위로서 작동되는 것이 아닌 ‘자치활동’이자 ‘기록활동’인 것을 의미한다(조영삼, 2020, 6). 이처럼 기록활동가들은 자발적인 아카이빙 활동을 하며 기록자치

권을 행사하여 기록자치를 실현하는 공동체 아카이브 실현의 핵심적 존재이다.

2)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현황

(1) 대상 선정 및 현황 분류 기준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최근 많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 주체가 다양하며, 운영이 일시적인 경우도 있어 심도 깊은 현황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여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이에 조사가 가능한 그 간의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들을 정리하고 대략적인 흐름을 통해 특징을 알아보려고 한다.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실행 완료된 기록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 중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이라 표명하여 교육 목적이 기록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이 명백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위해 교육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나 홍보물에 명시와 같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사례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심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에 양성된 기록가만을 참여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제외하였다. 보다 많은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지역이나 주관 주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문화기관, 기록활동단체¹⁰⁾ 등 다양한 단체와 기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방식의 유형 분류를 위해 그 기준을 교육 내용 중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형태의 이론 강의가 전체의 80% 이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론 중심형,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아카이빙 방법을 실습하는 수업이 전체의 80% 이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습 중심형, 그

10) 경북기록문화연구원, 사회적기업 (주)페이퍼 등이 속한다.

밖에 이론 강의와 실습이 병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혼합형으로 분류하였다.

참여강사진의 경우 기록학을 전공하거나 기록학계에서 학술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을 기록전문가로 분류하였고, 그 외 영역의 참여 강사를 비(非)기록전문가로 구분하였다.

도입내용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의 1, 2차시 내용을 도입내용으로 구분하였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교육 프로그램 내용 전체의 구성을 토대로 하였다.

(2) 현황 분석 결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실행 완료된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27개를 조사한 결과, 27개의 사례 모두 최소 4회 이상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교육 운영 주체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나 지역 도서관, 문화원으로 공공영역에서 주관하였으며, 기록활동단체와 같이 민간영역에서 주관하기도 하였다. 이 프로그램들의 표면적인 교육 목표는 지역 기록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이며 그 중 일부는 양성된 기록활동가들이 예정된 지역 아카이빙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역 사회에서 기대하는 역할 및 성과가 있기도 하였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실행 완료된 기록 활동가 양성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유형, 기록전문가 강사 참여여부, 주요 교육내용, 도입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이 보인다.

첫째, 참여 강사의 전문분야에 따라 강의의 도입내용이 달라졌다. 강사가 확인되지 않는 1건을 제외하고 기록전문가가 참여한 프로그램의 경우 ‘기록’, ‘기억’, ‘아카이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2〉 기록전문가가 참여한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교육내용 및 도입내용

시행 시기	지역	교육명	주요 교육내용	도입내용
2017	경기 이천	이천의 일상을 기록하다(이천 시민기록자 양성을 위한 인문학 강좌)	인문학	일상기록, 마을
2017	경북 안동	제1기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아카데미	기록활용	기록
2017	경북 안동	제2기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아카데미	지역기록화	기록, 마을기록
2018	경기 수원	골목잡지 사이다와 함께하는 마을기록학교	공동체 아카이브, 지역기록활동	마을기록
2015	경기 안산	마을을 기억하다, 지역을 기록하다	아카이빙 방법론	기록, 구술채록
2018	경기 군포	우리동네 기록학교 정규과정	아카이빙 방법론	커뮤니티 아카이빙
2018	경기 안산	4.16기억저장소와 함께 기억으로 쓰는 동네 이야기 : 마을기록활동가 양성프로그램	아카이빙 방법론	기록, 기억
2018	경기 화성	기억으로 쓰는 우리의 역사 누구나 평상 마을기록학교	아카이빙 방법론	기록, 구술채록 실습 일부
2018	충북 제천	기록하고 기억하는 제천시 도시재생 마을기록활동가 양성교육	아카이빙 방법론	기록, 구술채록
2019	경기 군포	우리동네 기록학교 정규과정-1	아카이빙 방법론	아카이브
2019	경기 군포	우리동네 기록학교 정규과정-2	아카이빙 방법론	아카이브, 우리나라 기록관리 현황
2019	경기 안산	기억으로 쓰는 동네 이야기: 마을 기록활동가 양성프로그램 2기	아카이빙 방법론	기록학 방법론 (업무분석), 기억
2019	인천 미추홀	미추홀시민기록자 교육	아카이빙 방법론	시민기록
2019	전북 장수	마을기록활동가 양성을 위한 장수군 마을기록학교	아카이빙 방법론, 마을기록	마을기록
2020	인천 미추홀	미추홀시민기록단	아카이빙 방법론	기록관리의 이해
2020	경북 청주	문화도시청주와 함께하는 시민기록가 양성프로그램	아카이빙 방법론	아카이브, 기록관리의 이해

반면 비기록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한 프로그램의 경우 강의의 도입 부분의 주제가 ‘마을’, ‘지역’, ‘지역사’ 등으로 나타났다.

〈표 3〉 비기록전문가가 참여한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교육내용 및 도입내용

시행 시기	지역	교육명	주요 교육내용	도입내용
2017	충남 서천	공주대학교-서천군 연계과정 마을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지역, 아카이빙 방법론	마을
2018	경북 안동	제3기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아카데미	생애기록	기록관리
2018	경북 안동	제4기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아카데미	생애기록	아카이브
2018	서울 도봉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생애기록	기록
2018	충남 서천	마을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지역사	지역사
2019	경북 안동	제5기 시민아키비스트 양성 아카데미	생애기록	아카이브
2019	경북 안동	제6기 시민아키비스트 양성 아카데미	지역기록화	지역, 사진
2019	충남 서천	마을기록활동가 양성과정	마을, 아카이빙 방법론	마을기록활동, 마을조사
2020	전북 장수	장수군 기록활동가 양성 심화실습과정 : 마을 기록학교	지역기록화	기록활동가
2020	경북 안동	제7기 경북 시민 아키비스트 아카데미-자서전으로 완성하는 생애기록가 양성과정	생애기록	생애기록

〈표 3〉에서 2018~2019년 경북기록문화연구원에서 진행한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아카데미’의 경우는 비기록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였지만 도입내용이 ‘기록’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교육운영 기획에 대한 세부적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북기록문화연구원의 경우 앞서 2017년에 운영된 교육 프로그램에 교육운영 주체들이 직접 수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후 이후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비기록전문가가 강사진으로 구성되었지만 기록전문가의 교육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카이빙 활동의 중점을 비기록전문가의 경우 아카이빙 '대상'에 두고 있고, 기록전문가는 아카이빙 '방법'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방법론 중심의 교육을 시행하는 관점은 외부자로서 기록전문가가 가져야 할 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방법론에만 치중한 교육은 아카이빙 대상에 대한 탐색과 선정이 전적으로 교육 참여자들의 몫이 되기 때문에 교육 수료 후 주도적으로 아카이빙 활동 대상을 선정하고 자신들이 학습한 기록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실천으로 이어지기에 어렵다. 공동체 구성원들을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나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자신들에게는 익숙하고, 일상적인 것이라 아카이빙 대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이빙 방법을 학습에 앞서서 아카이빙 대상을 포착하여 선택하고, 선택한 대상에 대한 수많은 기록 중에 어떤 기록을 수집·채록·생산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선별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조사한 사례 중 아카이빙 대상 선별에 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양성 교육 프로그램 사례로는 2019년 경기 군포에서 운영된 '우리동네 기록학교 정규과정-2'가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기록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며, 군포 생활문화 수집을 주제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수업이 포함되어 있다.

주관 기관에서 예정된 아카이빙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대상'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 탐구에 대한 교육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 교육 참여자들에게 아카이빙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 수료 이후에는 예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예정된 사업을 수행할 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에 목적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교육내용 구성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기도 하다. 교육을 주관하는 주체는 한정된 시간과 자원 안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길 희망한다. 이들은 프로그램의 표면적 교육목적은 지역 기록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에 있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단기적인 아카이빙 사업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하는 것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 이후 즉각적인 출판, 전시 등으로 사업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손동유, 2020, 97). 교육을 주관하는 주체에 의한 교육 목표나 아카이빙 활동 대상 설정은 다양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진정한 공동체 아카이빙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해보아야 한다. 공동체 구성원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공동체의 기록은 교육 주관 주체가 생각하는 공동체 기록과 다를 수 있다. 공동체 구성원인 기록활동가의 시각과 관점에서 선정한 아카이빙 대상이나 주제가 아니라 교육 주관 주체의 관점에서 기대하는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 선정된 아카이빙 대상이기 때문에 진정한 공동체 아카이빙 활동이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 공동체 아카이빙 활동에서 중요한 지점은 아카이빙 대상을 주관 주체나 외부자인 전문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 스스로 대상을 선택하고 기록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에서는 아카이빙 방법론 학습에 앞서서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각 지역에서 실행되는 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기록활동가를 양성하고자 하였지만 ‘지역성’을 고려한 구성은 아니었다. ‘지역성’이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해당 지역만의 특징을 의미한다. 27건의 교육 프로그램 중 절반 이상인 14건의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교육 내용이 ‘아카이빙 방법론’이었고 그밖에는 기대하는 교육 산출물에 따라 주요 교육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였으며, 세부 교육내용의 경우 참여하는 강사진의 전문영역에 따라 달라졌다. 결국 교육내용 구성의 결정 요소는 교육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주체와 기대하는 산출물, 향후 예정되어 있는 아카이빙 사업 내용에 따라 결정되었다. 지역성이

고려된 교육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과 지역민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하여 해당 지역만의 아카이빙 활동 방법론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진다.

셋째, 구술채록 방법론 학습이 강조되었다. ‘구술채록’ 방법 수업이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은 전체 27건 중 15건으로 실습 형태로 교육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실습교육을 하지 못한 경우 교육 종료 후 워크숍 형태나 심화교육과정 형태로 구술채록 실습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기록활동가 교육에서 구술채록 방법론이 주요 학습내용인 이유는 민간기록의 경우 과거에 생산된 기록이 적거나 부재하여 수집이 어렵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공동체 아카이빙 활동에서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중요한 아카이빙 방법이기 때문이다. 구술채록에 대한 학습이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다른 아카이빙 방법들과 달리 구술채록은 매우 유연하고, 즉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실습을 통해 방법을 습득하도록 구성한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교육 방식을 유형 분류 결과 2018년 이후 시행된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론학습과 실습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형 교육 형태를 띠고 있다.

〈표 4〉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교육방식 유형화 분류

교육방식	시행 시기	지역	교육명
이론중심형	2017	경북 안동	제1기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아카데미
	2017	경기 이천	이천의 일상을 기록하다(이천 시민기록자 양성을 위한 인문학 강좌)
	2017	경북 안동	제2기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아카데미
	2018	경기 수원	골목잡지 사이다와 함께하는 마을기록학교

이론실습혼합형	2015	경기 안산	마을을 기억하다, 지역을 기록하다
	2017	충남 서천	공주대학교-서천군 연계과정 마을기록활동가 양성과정
	2018	경북 안동	제4기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아카데미
	2018	경기 안산	4.16기억저장소와 함께 기억으로 쓰는 동네 이야기: 마을기록활동가 양성프로그램
	2018	경기 화성	기억으로 쓰는 우리의 역사 누구나 평상 마을기록학교
	2018	경기 군포	우리동네 기록학교 정규과정
	2018	충북 제천	기록하고 기억하는 제천시 도시재생 마을기록활동가 양성교육
	2018	서울 도봉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2018	경북 안동	제3기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아카데미
	2018	충남 서천	마을기록활동가 양성과정
	2019	경북 안동	제5기 시민아키비스트 양성 아카데미
	2019	서울 성북	성북문화원 주민기록단
	2019	전북 장수	마을기록활동가 양성을 위한 장수군 마을기록학교
	2019	경기 안산	기억으로 쓰는 동네 이야기 : 마을 기록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2기
	2019	인천 미추홀	미추홀시민기록자 교육
	2019	경기 군포	우리동네 기록학교 정규과정-1
	2019	경기 군포	우리동네 기록학교 정규과정-2
	2019	충남 서천	마을기록활동가 양성과정
	2019	경북 안동	제6기 시민아키비스트 양성 아카데미
	실습중심형	2020	인천 미추홀
2020		충북 청주	문화도시청주와 함께하는 시민기록가 양성프로그램
2020		전북 장수	장수군 기록활동가 양성 심화실습과정 : 마을기록학교
2020		경북 안동	제7기 경북 시민 아키비스트 아카데미-자서전으로 완성하는 생애기록가 양성과정

2017년까지만 해도 이론 중심형 교육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다수였는데, 2018년 이후부터는 이론학습과 실습이 병행되는 혼합형 교육 형태가 주를 이루며, 2020년에는 실습이 중심인 교육도 등장하였다. 특히 다년간 지속적으로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북 안동의 '시민아키비스트 양성 아카데미'의 경우 그 변화가 뚜렷하게 보인다. 제1,2기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 내용이 이론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 제 3,4,5,6기 프로그램의 경우 이론 수업과 실습이 병행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가장 최근 운영된 제7기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실습 중심의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학 관점에서 이론 중심형 교육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인지주의 교육방식으로 강의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실습 중심형 교육은 학습자의 경험을 중요시 하는 구성주의 교육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방식의 변화 기록활동가 양성교육이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가 중심의 교수방법에서 점차 학습자 중심 학습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의 원인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활동가들이 이론 학습만으로 교육수료 후 아카이빙 방법을 체화된 상태에서의 실천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론 학습과 실습을 병행하는 혼합형 교육 내용을 통해 아카이빙 활동을 경험하고, 체화하여 수료 이후에 그 경험을 지역 아카이빙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 것이라 예측된다.

다섯째, 하나의 주관 기관에서 여러 회차에 걸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프로그램 세부 내용이 변화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 군포의 ‘우리동네 기록학교 정규과정’과 경북 안동의 경북기록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시민아키비스트 양성 아카데미’를 들 수 있다. 경기 군포 군포문화재단에서 시행한 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문화 아카이빙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었다. 군포시의 지역문화 아카이빙 사업은 다양한 주제를 기록하고, 가공하기 위한 교육을 통해 지역 기록활동가를 양성하고 지역기록을 활용한 자료집을 제작하며, 수집한 기록을 마을문화저장소에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로 실행되었다. 이 사업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2018~2019년에 실행된 3건의 프로그램으로 아카이빙 이해와 구술 녹취, 아카이빙 자료의 분류와 관리, 군포 생활문화 수집이라는 교육주제를 설정하여

각 교육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였다(이범, 2019, 83-84).

경북기록문화연구원에서 2017~2020년 시행된 ‘시민 아카이비스트 양성 아카데미’의 경우 2017년 제1,2기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기록전문가가 강사진으로 포함되어 일반적인 아카이빙 방법론을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였다면 2018~2019년 실행된 제3,4,5기까지의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과는 다른 접근법을 보였다. 제3,4,5기까지의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 자신의 기록을 아카이빙하고 기록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생애사 바인더’를 제작하는 내용으로 교육이 구성되었다. 이는 개인의 삶을 기록으로 정리하는 교육을 통해 지역 생활사 수집과 기록하는 활동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한국일보, 2018.11.24.). 이러한 교육 내용 구성은 개인을 지역의 가장 작은 구성 단위로 이해하였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여섯째, 2020년에 시행된 양성 교육 프로그램 3건 중 2건은 온라인 교육이 병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한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교육이란 강사와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한 공간에 집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된 교육을 의미한다. 이 2건의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온라인을 활용하여 비대면 교육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이 병행되었다는 사실만이 확인되며 구체적인 교육 제공방식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3.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의 방향성

교육방법이란 ‘교육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내용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된 활동’이다(이지현, 2008, 14).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의 최종 목표는 교육 이후에 참여자들

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기록을 수집·생산·채록하고 더 나아가 보존·관리까지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결국 교육에서 학습된 지식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양성 교육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기록활동가들의 정체성과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의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교육 참여자들의 학습된 지식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성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1) 기록자치를 실현하는 기록활동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기획

해방촌 마을기록단 심수림 공동대표는 인터뷰에서 “행위 당사자는 자신들이 주체로 있는지, 동원되고 있는지 가장 먼저 안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단기 아카이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동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인지를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참여 당사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극복하고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아카이빙 활동을 하는 기록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 종료 이후 모집된 참여자들을 예정되어 있는 아카이빙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수준에서 나아가 기록자치를 실현하는 기록활동가를 양성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두고 교육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시민 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에서의 ‘프로그램 기획’이 아닌 하나의 교육과정으로써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강의를 담당하는 기록전문가가 기획에 참여하고 직접 운영하며 양성 교육 프로그램 종료 후 학습자의 평가뿐만이 아니라 주관 기관과 강사진 평가도 필요하다.

교육학에서 교육과정 개발의 개념과 범주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특

정한 교과들의 목록이 담긴 문서, 학습경험의 계획에 관한 문서, 의도된 학습 성과 목록을 적은 문서를 만드는 활동들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목적과 교육내용의 체계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긴 문서를 만드는 활동을 가리킨다(김대현·김석우, 2007, 33).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학에서 교육과정 개발과 같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이유는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이 단순히 교육을 수료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습자들이 학습된 내용을 실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에게 습득된 지식을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교육 주관 기관과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진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교육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 실행 후 교육과정 평가로 이어져야 한다. 교육과정의 평가는 교육과정 계획의 수립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개발 평가, 계획된 교육과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교육과정 운영 평가, 교육과정 운영의 결과적 산출물에 대한 교육과정 성과 평가를 포함한다(김대현·김석우, 2007, 35). 기존의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 교육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행하나 교육과정 평가는 이 차원을 넘어선 평가를 의미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종료 후 몇 명의 기록활동가가 양성되었는지, 교육 산출물이 나왔는지 수치적 평가를 넘어선 교육 프로그램 자체의 내용적 평가를 의미한다.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적 평가는 개발과 마찬가지로 주관 기관, 강사진 등 운영 주체들이 진행해야 한다. 교육을 주관하고 운영하는 주체의 교육 내용 평가는 자신들이 개발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실제 운영된 교육 과정을 평가하며 최종적으로 교육 참여자들의 평가 내용이 반영된 교육과정 성과 평가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평가는 향후 양성 교육 프로

그램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되며, 기록전문가들에게는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아카이빙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

양성 교육은 참여자들에게 아카이빙 활동에 대한 지식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이 학습한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양성 교육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 능동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공공영역에서의 지원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기록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주관 기관의 관심과 재정적 지원, 활동가 간 네트워킹, 그리고 기록활동을 알릴 수 있는 장을 마련되는 것 등과 같이 주관 주체가 개입하여 지원하는 외적 요인도 필요하지만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의 활동 동기를 유발하여 활동에 대한 의지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록활동가의 활동 동기나 의지, 개인이 느끼는 기록활동에 대한 필요성은 내적 요인에 해당하며, 공동체 아카이빙 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초이자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교육 종료 이후 양성된 기록활동가들이 지속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기록활동이 개인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무리 공익을 위한 활동이고, 유익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앞서 조사한 사례 중 경기도 시흥시 기록활동가 모임인 '결뚝'의 경우 시의 사업 중요도 변경으로 인해 기록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지만 자발적으로 모임을 유지하며 기록활동을 하고 있으며, 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인터뷰 대상자였던 해방촌 마을기록단의 심수림 공동대표는 자신들의 활동을

‘적극적인 취미활동’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지속하는 원동력은 자신들의 기록을 모으고, 만들고, 활용하는 행위가 자신들의 삶과 공동체를 위한 실천임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들과 같이 기록활동이 자발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록활동가 스스로가 공동체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공동체의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기록학적 시각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아카이빙 활동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의 자각이 필요하다. 이는 기록활동가를 양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양성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시도되고 이루어져야 기록활동가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아카이빙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카이빙 활동과 개인의 삶의 직접적 연관성을 갖게 하기 위해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서 ‘나’ 자신을 대상으로 아카이빙 활동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자신과 관련된 기록을 수집·생산하고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기록을 남겨야 하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학습자 자신의 삶과 아카이빙 활동을 연결시켜 아카이빙 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아카이빙 대상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나’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아카이빙 경험을 통해 아카이빙 활동의 기본적인 방법을 학습하고, ‘나-가족-지역’으로 아카이빙 대상을 확장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와 관련된 기록은 일기와 같이 자신만의 기록일 수도 있으나 ‘내가 사는 마을’, ‘내가 다니는 학교 또는 직장’, ‘내가 활동하는 모임’ 등과 같이 ‘나’를 중심으로 대상이 확장될 수 있다. 이는 결국 ‘나’라는 개인과 관련 있는 사람들, 내가 생활하는 지역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인간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결국 사회를 형성하고 끊임없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연결되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결혼 기록, 자녀 성장 기록, 가족 기념일, 행사 기록 등과 같은 가족 공동체의 기록은 지역 사회 내의 가장 기초적인 기록관리 단위로서 기능할 수 있다(김명훈, 2020, 233). 학습자들이 교육을 통해 개인인 ‘나’ 자신과 내가 속해 있는 ‘가족’에 대한 기록이 지역 사회와 무관한 관계가 아니며 나와 내 가족의 기록이 내가 살아가는 지역의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나-가족-지역’이라는 연결점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가족-지역’으로 아카이빙 대상 확장 교육 방안은 현재 증평기록관이 주관하는 증평기록가 양성 교육에서도 적용되고 있다.¹¹⁾

3) 아카이빙 방법의 체화를 위한 이론과 실습 구성

이론학습과 실습의 학습 순서를 적절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이론학습을 선행한 후 실습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기록학적 지식이 전무한 학습자들의 경우 이론과 실습의 연결점이나 관련성, 지식에 대한 필요성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론학습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고 이는 아카이빙 활동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말기록당의 최연희 상임활동가는 인터뷰에서 “기록활동가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였지만 실제 현장에 나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여 다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이처럼 이론학습과 몇 번의 실습만으로 지식을 완벽하게 습득하고 체화하여 실천으로 연결짓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의 목적이 ‘실천’이

11) 증평기록관에서는 2020년 11월 17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지속 가능한 아카이빙 활동을 위해 ‘증평기록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11명의 기록활동가가 수료하여 ‘증평기록가’로 활동하고 있다.

라면 오히려 실습을 통해 아카이빙 방법을 체화하고, 체화한 내용을 이론과 연결하는 선 실습, 후 이론학습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기록을 수집·생산·채록하는 것과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새로운 일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일상적으로 해오던 아주 쉽고 친숙한 일임을 실습을 통해 경험하며,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고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이 관련 전문 지식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학습자들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에 아카이빙 방법에 대한 실습을 선행하여 체화한 후 좋은 사례들을 보고, 기록학적 지식을 학습하여 자신이 체화한 내용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4) 조력자이자 협력자로서의 기록전문가

교육에 참여하는 기록전문가는 학습자가 아카이빙 대상을 찾고, 아카이빙 활동을 진행 할 수 있게 하는 조력자이자 협력과 연대의 대상으로서 역할 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일상을 살아가며 기록을 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기록을 관리하며 보존한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나름의 아카이빙 방식이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아카이빙 방식이 곧 공동체의 특성이 반영된 아카이빙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전문가는 공동체 구성원인 참여자들의 아카이빙 방법을 존중하며, 아카이빙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력자로 존재해야 한다. 교육에서 기록전문가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한 기록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기록관리방법 중 하나를 소개하는 것이고, 교육에 참여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다양한 기록관리방법 중에 자신들의 특징과 상황에 가장 알맞은 기록관리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은 외부자인 기록전문가들이 아카이빙 대상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아카이빙 주체 스스로가 아카이빙 대상을 찾고, 자신들의 상황에 적절한 아카이빙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록전문가는 기록활동가들의 활동에 지지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무엇을 아카이빙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무엇'은 타인이 아닌 아카이빙을 행하는 주체인 공동체 구성원들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며, 전문가와 관은 그들의 방식대로 기록을 남기고 보존할 수 있도록 존중하며 연대와 협력을 통해 보다 원활한 아카이빙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비대면 교육 방법 개발

앞서 살펴본 충북 청주 사례와 인천 미추홀구 사례와 같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기록 활동에 대한 교육은 지속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반영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비대면 교육의 경우 기존 대면 교육 방법과는 다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비대면 학습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를 고려한 교육방법이 실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대면교육의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 그대로 비대면 교육에 적용한다면 동일한 교육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자들이 비대면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환경 조성에도 지원이 필요하다. 양성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기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하여 교육 제공에 있어 차별과 소외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기록전문가들이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아카이빙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기록전문가의 사회적 역할이다. 이에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에 강사진으로 참여하는 기록전문가들도 교육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와 제공하는 교육의 내용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정되어 있는 단기적 아카이빙 사업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아카이빙 활동이 가능한 기록활동가를 양성하고자 한다면 그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록활동가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주관 기관 관련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지역 기록활동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실행 완료된 양성 교육 프로그램 중 교육 내용이 공개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언급된 사례들은 전국에서 발생하고 실천되는 모든 사례를 포괄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에 대한 아카이빙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와 내용적 평가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과 기록활동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아카이빙 활동을 하고 있다는 현황과 동향을 확인하고, 기록전문가의 입장에서 기록활동가 양성을 위해 제공해야 할 기록교육 방법에 대한 고민을 시도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에서 전문가들이 가져야 할 공감되는 태도는 아카이빙 활동에 대한 교육이 ‘계

몽'이 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성 교육에서 '양성'이라는 표현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가르쳐서 유능한 사람을 길러냄' 혹은 '실력이나 역량 따위를 길러서 발전시킴'이라는 뜻의 '양성'이라는 단어는 이미 그 안에 '계몽'이라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공동체 구성원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해 기록전문가의 협력 자세와 지원, 구체적인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는 후속 연구로 남긴다.

〈참고문헌〉

- 김대현·김석우 (2007)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학지사
- 김명훈 (2020). 가족아카이브의 사회적 확대를 위한 시론적 분석. 기록학연구 66.
- 김성보 외 (2016). 한국현대생활문화사 1970년대. 창비
- 김화경 (2012).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전략 : 부산 산복도로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 설문원 (2010)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26.
- 설문원 (2012). 공간 중심의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의 설계.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 설문원 (2012).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 손동유 (2019). 민간분야 공동체 아카이빙의 성과와 과제. 실천민속학연구 34.
- 손동유 (2020). 민간 아카이브 활성화의 의미와 과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5.
- 원종관 (2021). 기록보다 기록 활동, 이 어려운 일. 상생협력 워크숍 청주시기록관 공동포럼 〈기록과 문화도시〉 자료집.
- 윤은하 (2012).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33.
- 이 범 (2019). 군포문화재단 우리 동네 기록학교 사례. 제11회 전국기록인대회 발표자료집.
- 이영남 (2012). 공동체아카이브, 몇 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31.
- 이영남 (2019). 자살유족 기록작업의 방법과 의미. 기록학연구 59.
- 이경래 (2015).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모델 연구. 기록학연구 45.

- 조영삼 (2020). 기록자치와 지방기록원. 지방기록원 설치 확산을 위한 기록관리 학술세미나 기초발표자료집. 국가기록원.
- 한국일보 (2018,11,24.). “내 삶도 역사의 한 조각”기록자가 된 보통사람들.
- Joanne Evans · Sue McKemmish · Elizabeth Daniels · Gavan McCarthy (2015). *Self-determination and archival autonomy : advocating activism*, Archival Science 15.